12일 Market Index
코스피 2475.42 (-15.58)
코스닥 822.43 (-2.11)
금리(국고채 3년) 3.225 (+0.005)
환율(원·달러) 1334.50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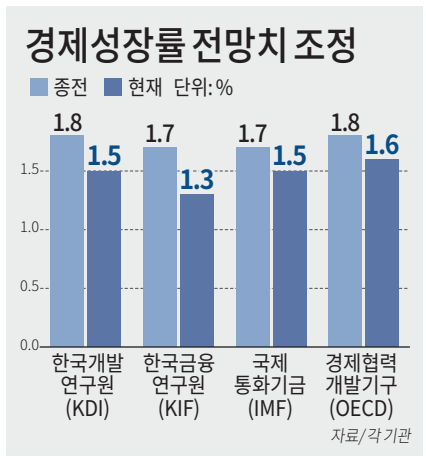
metro 경제

나라셀라 몸값 내리고 IPO 재시동 03

구독료: 월 20,000원 / 1부 1,000원 등록번호 서울 가50111 독자센터 (02)721-9861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국내외 '韓 성장률 전망' 일제 하향

딜레마 빠진 경제정책 1% 초반 성장도 위태



"2023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침체로 가느냐 마느냐 하는 보더라인(borderline·경계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올 상반기의 중반에 들어선 지금,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다. 하반기에 접어들면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분석과 달리, 수출과 투자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대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부진과 미국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 1%대 초반 성장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온다.

주요기관, 성장률 1%대 중반 전망
中 회복 지연, 美 경기침체 우려
재정적자·고물가로 대책 제한적

KDI뿐 아니라 국내 외 경제기관들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내리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해 말 1.7%에서 1.3%로 하향 조정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에서 1.6%로 낮췄다. 코로나19가 닥친 2020년(-0.7%)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외환위기였던 1995년(-5.1%)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폭의 성장률이다.

한국은행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지난주 국제수지 기자설명회에서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당시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성장률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IT 경기 회복 시점,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지난 2월 전망 때와 달라진 부분이 있어 오는 25일 수정경제전망 발표 때 경상수지 전망치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성장률 하향조정, 수출·투자 부진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는 이유는 수출과 투자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심리가 회복되며 민간소비는 확대되고 있지만,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제조업경기와 주택경기가 둔화하면서 투자도 부진한 상태다.

실제로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현황을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년전과 비교해 10.1% 감소한 144억85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감소한데 이어 이달 초순까지 마이너스 흐름을 유지했다.

품목별로 보면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가 1년 전보다 29.4% 하락했다.

◆ 재정적자에 대외여건악화…뚜렷한 방도 없어

문제는 이러한 경기둔화에도 정부가 쓸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지수는 지난 3월 기준 54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올해 전체 적자전망치인 58조2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재정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경기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출을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상황이 돼 버린다.

물가도 둔화되긴 했지만, 목표치보단 높은 수준이다. 지난 4월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7%를 기록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기회복이 더디고, 미국의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 우리나라의 경제회복도 지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 천소라 박사는 "중국경제의 회복이 여전히 중국내 서비스업에 국한돼 투자부문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반도체 수요가 회복되지 못할 경우 경제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JY, 머스크와 첫 회동… 전장사업 날개 달까

이재용 삼성 회장 美 출장 마무리
테슬라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관심

왼쪽 두번째부터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칸 부디라지(Karn Budhiraj) 테슬라 부사장, 앤드류 바글리노(Andrew Baglino) 테슬라 CTO,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경계현 삼성전자 DS부문장 사장,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한진만 삼성전자 DSA 부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JY네트워크'를 확대했다.

14일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연구소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를 만났다.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일론 머스크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다. 7나노 파운드리 공정에서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반도체를 만든 바 있다. 위성통신을 주요 변화로 하는 6G와 관련해서도 차세대 위성통신 업체 스타링크와 교류를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머스크 CEO를 직접 만나면서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반도체 수주 향방에도 다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다시 한 번 차세대 공정에서 수주를 독차지할 수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대만 매체 등이 TSMC 수주를 주장했지만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던 상황, 이번 회동을 통해 삼성전자가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삼성전자가 차량용 부품 사업에서도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도 높다. 이미 테슬라 완전자율주행 반도체를 생산한 경험을 앞세워 엔비디아와 모빌아이에서도 파운드리 생산 주문을 따내는데 성공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 반도체 생산 경험을 토대로 자율주행 카메라 및 S/W 개발 기업 '모빌아이'의 고성능 반도체 위탁 생산 주문을 따내는 등 전장 반도체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리서치앤드마켓 등에 따르면 글로벌 전장 반도체 시장은 내년 4000억 달러(약 520조원), 2028년 7000억 달러(약 91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회동에는 이 회장과 삼성전자 DS부문 경계현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과 함께 삼성디스플레이 최주선 사장도 동행했다. 삼성디스플레이도 전장용 디스플레이를 미래 먹거리로 보고 '디지털 콕핏'을 개발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IT용 OLED 라인을 증설하며 생산 능력을 크게 높이기도 했다.

〈2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

양자·다자 연쇄회담… 尹, 외교전 '슈퍼위크'

加·獨 정상들 G7 방문차 방한
EU·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미국 국빈방문과 이달 초 12년 만에 셔틀외교를 복원한 한일정상회담과 더불어 잇따른 양자·다자회담을 통해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9~21일 일본 히로시만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전후해 한국을 방문하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상임의장 및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비롯해 정상외교를 진행한다.

우선 양자회담으로 트뤼도 총리는 16~18일까지 공식 방한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한-캐나다 정상회담 계기에 트뤼도 총리를 초청한 바 있다.

당시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규범에 기반한 국제체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 수호 ▲평화유지 및 해양안보를 포함한 안보 및 국방 파트너십 강화 ▲경제적 번영과 경제안보 증진, 공급망·핵심광물·과학기술혁신 협력 및 교역과 투자 촉진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 대응, 에너지안보 지원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보건 및 문화 파트너십 심화 등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17일 예정된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는 오랜 우방으로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의 우호 협력 역사를 축하하고 자유·민주주의·법치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양국 관계의 미래 협력 비전 공유 등 양국 관계의 강화 방안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독일 수교 140주년을 맞아 방한하는 숄츠 총리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 강화를 비롯해 한반도 및 국제문제 대응을 위한 연대와 공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어린이정원 내 야구장에서 열린 2023 대통령실 초청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결승 경기에 앞서 구심으로 등장해 밝게 웃고 있다. /뉴시스

이번 숄츠 총리는 방한은 1993년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양자 방한 이후 30년 만이다.

이어서 22일에는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과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며 한-EU 정상회담도 열린다.

〈2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이재명, 김남국 탈당에 대국민 사과… "국민께 심려끼쳐 죄송" /사진 뉴시스

▲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차장 자녀 채용 논란 특별감사

▲ 與 민생119, 16일 청소년 마약중독 간담회

▲ 박대출 "포털, 실검 부활 꼼수…'고마워요 이재명' 봐야할지도"

▲ "산 자여 따르라" 여·야 정치권, 5월 광주 '참배 행렬' /사진 뉴시스

▲ 정부, 홍성·강릉 산불피해 복구에 808억 투입